

박 응 렬
(주)삼양사 부장 비육우PM

한육우 사료산업의 금년 결산 및 내년 전망

올 9월 한육우의 사육두수는 224만두로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하였고, 5~7월의 한육우 배합사료 생산량은 93.4만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하였다(그림1). 외형으로는 국내의 비육우 시장규모가 현저히 커지는 경향을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그 어느 해보다 혼란이 많은 한 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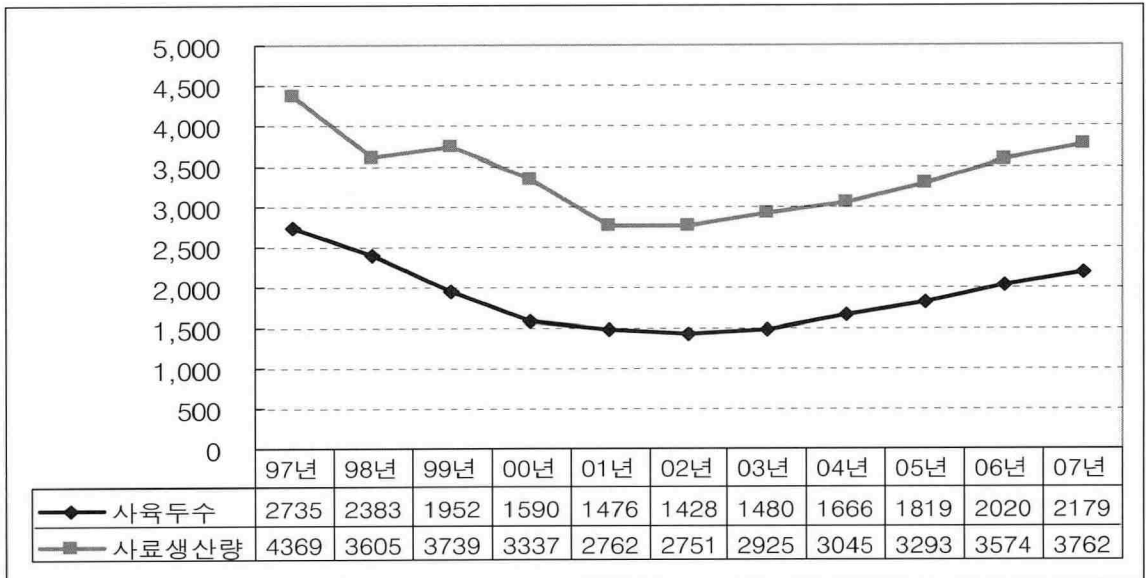
그 주요원인으로 첫째가 국제 곡물가격 상

승에 따른 사료가격의 대폭적인 인상이고, 두번째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국내 비육우 시장의 불안정이었다.

우선 작년 11월 이후 4차례에 걸친 배합사료 가격 인상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0%의 배합사료비가 인상되었다. 국제 곡물가격은 미국 내 옥수수의 자동차용 에탄올 원료로의 사용증가로 인해 옥수수 가격이 상승하여 전체 사료원

〈그림 1〉 비육우 사육두수 및 비육우사료 생산량 추이

(단위: 천두, 천톤)



* '07년 사육두수 : '07년 6월 기준, '07년 비육우사료 생산량은 예상 수치임

송년특집① : 축종별 사료산업 결산 및 전망



료용 곡물가격이 동반 상승하였는데, 현재 거래되고 있는 옥수수의 내년도 3월 사용 예상가격은 290달러로 올 2월 대비 무려 65%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표 1).

비육우사료에서 탄수화물 공급원 및 펠렛 결합제로 주로 사용되는 소맥의 가격은 너무 높아서 올 12월 이후 구매자체가 어려운 실정이고, 전통적으로 비육우사료에서 가격 경쟁력이 높은 원료로 선호된 팜박 또한 올 2월 대비 내년 3월 가격이 2.6배나 상승한 215달러로 거래가 형성되고 있다.

전세계 옥수수 생산의 41%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은 내년도에 에탄올용 옥수수의 사용량이 올해 대비 3,200만톤이 증가한 8,600만톤이 예상(58%↑)되고 있어 내년도에도 옥수수를 비롯한 기타 곡물가격이 동반상승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중국의 올림픽 준비의 영향으로 '06년 대비 '07년에 2배 가까이 상승하였던 곡물의 해

상운임이 일부 하락 할 것으로 예상되어 그나마 사료비 상승의 일부 감소요인으로 작용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는 비육우 양축가의 손익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육우의 판매가격이 올 4월 한미간 FTA협상 타결 및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으로 위협받고 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의 미산 쇠고기 수입재개는 호주산과 뉴질랜드산의 쇠고기 수입량 및 돼지고기의 판매가격에 더욱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그 예로 미산 쇠고기가 본격 수입되기 시작한 6월과 7월의 한우가격이 아직 전년도 대비하여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였고(표 2), 수입쇠고기의 75%를 점유하고 있던 호주산 쇠고기의 수입량이 한미간 FTA 협상이 타결되기 직전인 3월 대비 4월 이후 대폭 감소하였다(그림 2).

하지만 만약 갈비를 포함한 미산 쇠고기 수입량이 대폭 증가 할 경우, 국내 적정 한육우 사육

〈표 1〉 2007년 주요 곡물가격의 변동

(CNF 단가, US\$/MT)

원료명	'07년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08년 3월	'07년2월 대비 '08년3월 차이
옥수수	176	194	209	225	226	232	290	65%↑
소 맥	172	200	207	203	212	212	-	23%↑ (12월대)
팜 박	84	89	104	138	140	144	215	156%↑
야자박	136	150	155	160	174	165	200	47%↑

** 사료용 소맥 사용 중단 예상.

〈표 2〉 '06년 '07년 한우 평균 지육단가 비교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2006년	15,331	14,897	14,316	14,319	13,496	13,510	13,644	14,397
2007년	15,121	15,430	14,437	13,515	13,605	14,033	13,901	13,906

두수인 200만두를 이미 초과한 국내 비육우 시장은 쇠고기 공급 과잉으로 국내산 쇠고기의 가격이 큰 하락폭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내년도 국내 한육우 사료시장이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도의 국내 비육우시장 규모는 올 9월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작년 10월 이후 약 30%의 사료비가 인상되었지만, 전년동기 대비 한우 암송아지와 숫송아지의 판매가격은 오히려 각각 31%와 12% 감소하였다(그림 3).

올 8월 발행한 한국축산연감(2007-2008)을 보면 한우비육의 전체 생산비에서 송아지 구입비의 비중이 57%, 사료비의 비중이 34%로 송아지의 구입비가 사료비에 비해 현저히 높다. 결과적으로 외부에서 송아지를 구입하여 사육하는 비육우 사육농가에서는 총 생산비가 소폭 감소하여 여전히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였지만, 한우

번식우 농장의 수익성이 크게 감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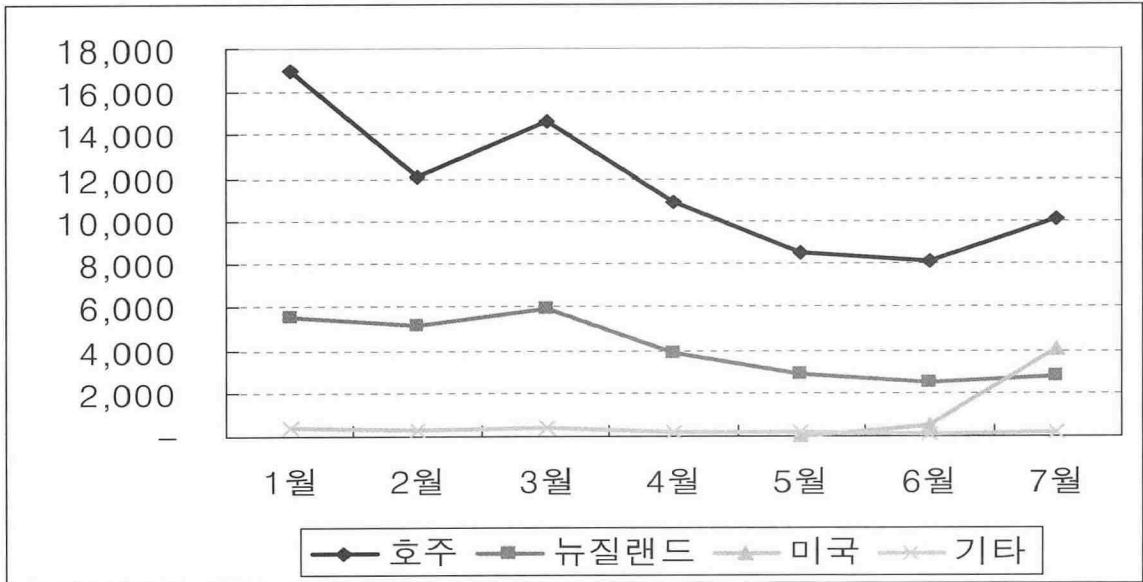
결국 국내 한육우의 92%를 공급하는 한우 번식우 농장들의 송아지 생산열기가 감소되어 한우 번식우를 비육시켜 출하하는 등, 송아지 가격에서도 암송아지의 가격이 숫송아지 대비 더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결과를 보였다(그림 3).

하지만 올 6월 한육우 인공수정두수가 이미 전년 동기간 대비 16% 증가하여 내년 전반기의 비육우 사육두수는 소폭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후반기에 정체 혹은 소폭의 감소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올해도 작년과 동일하게 비육우 사료업계 내에서 주목할 부분은 육성우를 중심으로 한 비육우 TMR사료의 사용량 증가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육우 TMR의 증가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고급육 생산과 편리성이 목적이었지만, 내년도는 각 농장에서 TMR설비를 완비하여 인근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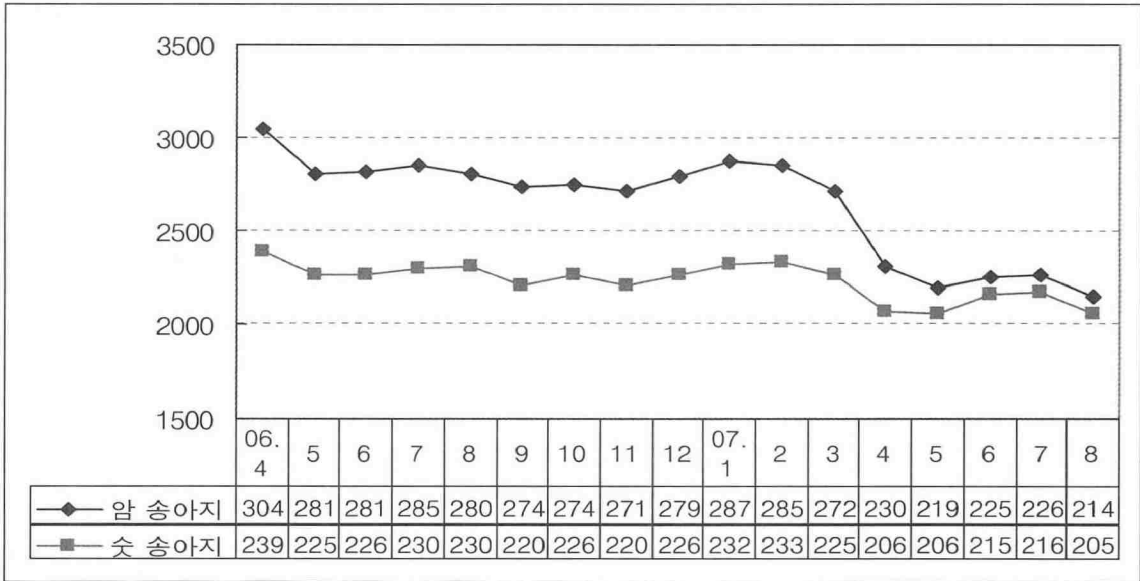
〈그림 2〉 2007년 국가별 쇠고기 수입량 변화 추이

(단위: 톤)





〈그림 3〉 '06~'07년 한우 송아지가격의 변동



값싼 부산물들을 이용을 한 생산비 절감을 목적으로 한 자가TMR 사용의 증가가 예상되며, 이러한 부분에서 실질적인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는 농업·식품 부산물의 개발 및 효율적인 활용이 그 어느 때 보다 요구된다.

내년도의 사료의 유통 분야에서는 올해와 동일하게 비육우 단체결성과 OEM사료의 증가가 예상된다. 우선적으로는 안정적인 소 출하와 사료의 단체구매로 인한 사료비 절감 차원에서 내년에도 양축가의 그룹화는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

또한 '06년부터 한육우 전문점이 전국적으로 크게 확산되었다. 이러한 한육우 전문점과 각 브랜드 단체가 직접 연계하여 중간 유통마진을 절감하고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여 한육우 양축가에게 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노력 또한 필요하다.

이상으로 여러 분야에서의 올 한 해의 한육우

사료산업의 주요 흐름과 내년도 전망을 짚어 보았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올 한해는 배합사료 가격 인상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매우 혼란한 한 해였고, 내년도 또한 여러가지 국내외 여건상 올해와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느 때와 같이 국내에 쇠고기의 공급량이 많아지면, 국내산 쇠고기 가격은 하락하고 그때마다 등급간의 가격 격차는 더욱 커지는 경향을 보여왔다. 올해도 그랬지만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매스컴을 통해 알려짐과 동시에 홍수출하가 발생하여 한육우의 산지가격은 일시적으로 하락하여 이때 출하한 양축가들이 특히 많은 손해를 보았다.

보다 안정적인 비육우 사업을 위해서는 외부 환경 변화에 연연치 않고 생산비 절감의 노력과 함께 체계적인 고급육 생산과 계획적인 출하가 그 어느 때 보다 요구되는 시기이다. ☞